在別韓訳中，每題
20分共60分，
以下中訳韓每題
8分，共40分

아저씨가 내 손에 호두알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단단한 껍질을 연한 싹이 어떻게 뚫고 나올지 궁금하지 않니? 아무래도 이 호두알의 주인은 홍점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내 손바닥 안의 호두알을 굴려보았습니다. 호두알들이 서로 몸을 부딪쳐 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저씨는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은 홍점아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시길래 먼데 하늘에서도 금방 눈에 띄게 하려고 이마에 붉은 점을 찍혀 놓으셨지. 하느님이 사람의 표시를 해준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또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남의 눈에 금방 띄고 오래오래 기억되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

나는 아저씨랑 헤어져 깽깽이 발로 띄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저씨야말로 하느님이 사랑의 표시를 해주셨다구요. 아저씨도 자기 몸에 사랑의 표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二. 문익환은 6·25의 비극, 광주의 비극을 모두 분단조국의 비극으로 보았거나와, 분단은 이 민족을 깊이 병들게 하고, 온갖 고통으로 몰아넣는 기본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분단은 우리의 눈을 사팔뜨기로 만들어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문익환은 국토통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민족이 당면한 온갖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80년대 전환기에는 핵의 위협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학생들과 재야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철거를 주내용으로 한 반핵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문익환은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위협에서 구하는 일 이상의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三.

우리는 다시 정장 앞으로 나와 상원점 위에 걸린 다리를 건너 이 연합기업 종사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갔다. 뒤에 나지막한 야산들은 모두 과수원과 남새밭과 논장으로 개간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수십여 동의 고층아파트군이 널찍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병원과 정양시설이 있었고 유치원에서 고등중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6,7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있었다. 가운데쯤에 종합상점과 식당이 있고 구역의 끝에 문화회관과 실내수영장이 있었다. 실내수영장은 여섯 사람이 밀렬로 경기를 벌일 만한 규격이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안에는 평일날 정오 무렵이어선지 아무도 없었다. 이발소, 목욕탕도 함께 있었고 여러가지 운동기구

(第 一 頁.共 一 頁)

四. 在肄業期間
文化大學韓文系成立39年，同學們可以去韓國姊妹校就讀。

五. 很多的韓國大學在鄉下設立分校，而是台灣的大學多把夜間部設在市區，讓那些白天上班的人方便就讀。

六. 現在多家的第四台都正在播放韓國的連續劇，很多人喜歡看。

七. 我希望在唸碩士課程的途中去漢城的幾家姊妹校，和幾位韓籍同學交換讀書心得。

八. 據說時調是韓國古代典型代表的詩歌，可能吟唱起來更悅耳。

中國文化大學 九十 學年度碩士班入學考試	
所(組)別： 韓國語文學研究所	考試科目： 韓 文 作 文

나의「硏究計劃」을 韓國語로 쓰시오(漢字混用도 可함)

(第 一 頁.共 一 頁)